

「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- 스토리 부문」 종합심사평

「2022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- 스토리 부문」에 응모해 주신 작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.

최종심사에 진출한 48개의 작품 중 1개 작품이 타 공모전에 당선되어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14명의 심사위원이 재택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15편을 선정하였습니다.

스토리 공모전의 경우 매해 유행하는 이야기 유형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, 이번 「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- 스토리 부문」 심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참여해 심사위원들이 더욱 작품을 꼼꼼하게 심사하였습니다.

독창성, 완성도, 시장성, 제작가능성, 분야확장성 까지 다섯 가지 심사기준을 두고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, 대상작품으로는 <수련으로 하여금 인살라>를 선정했습니다. 이 작품은 기획의도에 맞게 배경, 인물, 플롯이 잘 구성되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.

최우수상으로는 <여용국전>, <지옥의 설계자>, <낭만별곡>, <꽃밭에는 꽃들이>가 선정되었습니다.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장르에 치우침이 없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

그 외 우수상으로는 <우로보로스>, <척석군>, <수, 낙화>, <물랭루즈에서 왔습니다>, <거짓, 말>, <미소포니아>, <환국>, <칩리스>, <글로리데이즈>, <봉이>까지 열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.

이상 총 열 다섯 편의 작품을 「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- 스토리 부문」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
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. 가능성 있는 많은 작품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이기에 모든 작품을 선정할 수 없음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상하신 작가님 모두에게 축하인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좋은 작품들이 출품되기를 기대합니다.